<h1>나 혼자만 레벨업-69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ia5ce1d98d2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9화</p>  
<p>진우는 날이 밝자마자 대성타워로 갔다.</p>  
<p>'다시 봐도 크네.'</p>  
<p>100층짜리 고층 빌딩.</p>  
<p>가까이서 꼭대기를 올려다보려니 목이 아플 정도다.</p>  
<p>'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네.'</p>  
<p>전에 왔을 때와 달리 대성타워를 드나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.</p>  
<p>밤과 낮의 차이는 컸다.</p>  
<p>입구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다.</p>  
<p>'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면 또 시끄러워지겠지.'</p>  
<p>안 그래도 요즘 의문의 조력자니 뭐니 해서 스포라이트를 받고 있는 마당에 일부러 나서서 관심을 끌 필요가 있을까?</p>  
<p>'당연히 아니지.'</p>  
<p>진우는 눈에 띄는 걸 즐기는 성미가 아니었다.</p>  
<p>일단 한적한 곳으로 이동한 진우가 인벤토리에서 악마성 열쇠를 꺼냈다.</p>  
<p>금빛을 띠는 기다란 열쇠.</p>  
<p>언뜻 보면 장식품 같기도 한 아이템이었다.</p>  
<p>'아무도 없겠지?'</p>  
<p>주위를 둘러본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'여기서 가자.'</p>  
<p>진우는 은신 스킬을 시전했다.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형태가 사라진 진우가 대로로 나와 사람들 사이를 스쳐 가며 빌딩 가까이까지 걸어갔다.</p>  
<p>툭.</p>  
<p>툭.</p>  
<p>대낮의 도심 한복판 도로답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를 가는 동안 인파에 섞여 몇 번이나 어깨를 부딪쳤다.</p>  
<p>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.</p>  
<p>'은신 스킬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는데?'</p>  
<p>이래서 상급 헌터가 은신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면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거구나, 하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잡생각도 잠시.</p>  
<p>화르르륵.</p>  
<p>처음 왔을 때처럼 보이지 않는 경계 안으로 발을 들이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했다.</p>  
<p>'이렇게 멀리서도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들리네.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거지?'</p>  
<p>불타고 있는 거대한 탑.</p>  
<p>대성타워가 있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악마성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.</p>  
<p>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?</p>  
<p>'그래도 처음보단 덜하네.'</p>  
<p>확실히 악마성을 처음 봤을 때보다는 긴장감이 훨씬 덜했다.</p>  
<p>아니, 어쩌면.</p>  
<p>'내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.'</p>  
<p>진우는 악마성 열쇠를 창고로 돌려보내고 이번에는 잿빛을 띠는 열쇠를 꺼냈다.</p>  
<p>[아이템: 성문의 열쇠]</p>  
<p>입수 난이도: A</p>  
<p>종류: 열쇠</p>  
<p>악마성의 성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. 문지기를 죽여야 얻을 수 있습니다.</p>  
<p>문지기 개, 켈베로스를 죽이고 획득했던 성문 열쇠였다.</p>  
<p>전에는 켈베로스에게 호되게 당해 차마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는데, 이제 겨우 쓸 수 있게 되었다.</p>  
<p>스르륵.</p>  
<p>다음으로 불러낸 것은 무기.</p>  
<p>진우는 왼손에 성문 열쇠, 오른손에 '바루카의 단도'를 들고서 성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.</p>  
<p>켈베로스는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'악마성 던전에서는 몬스터들이 리스폰되지 않는 걸까?'</p>  
<p>단정할 순 없겠지만 켈베로스와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.</p>  
<p>'그렇다면...'</p>  
<p>몬스터가 리스폰 되던 기존의 인던들과는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.</p>  
<p>진우는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했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!</p>  
<p>스탯 수치가 100을 훌쩍 넘어간 감각을 확장시키자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도 천둥소리처럼 들려왔다.</p>  
<p>'하지만 무섭지는 않다.'</p>  
<p>이전과 달리 지금은 압도적인 강함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있었다.</p>  
<p>긴장감을 유지하는 것과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성문 앞에 서자 메시지가 떴다.</p>  
<p>[성문의 열쇠를 사용하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?] Y / N</p>  
<p>'그럼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까?'</p>  
<p>가당치도 않은 소리에 진우는 피식 웃으며 Yes를 선택했다.</p>  
<p>끼이이익-</p>  
<p>그러자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경첩이 삐걱대며 거대한 문짝 두 개가 움직였다.</p>  
<p>덜컹!</p>  
<p>'어라...?'</p>  
<p>진우는 당황했다.</p>  
<p>감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는데도 성문 안쪽에서 몬스터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.</p>  
<p>'몬스터가 없다고?'</p>  
<p>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걱정했던 진우였다.</p>  
<p>몬스터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올까봐 패널티 존으로 가서 모래지네를 잡으며 특훈을 해 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.</p>  
<p>'그런데...'</p>  
<p>그런데 이게 뭐람?</p>  
<p>노력이 무색했다.</p>  
<p>안은 썰렁할 정도였다.</p>  
<p>'허... 이것 참.'</p>  
<p>진우는 허탈한 심정으로 '바루카의 단도'를 도로 창고에 돌려보내고서 악마성 안에 발을 디뎠다.</p>  
<p>그 순간.</p>  
<p>띠링.</p>  
<p>울리는 기계음에 진우가 번개처럼 단검 두 개를 불러냈지만, 그냥 메시지가 왔음을 알려 주는 소리였다.</p>  
<p>'엇?'</p>  
<p>[퀘스트가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'퀘스트가 도착했다고?'</p>  
<p>일일 퀘스트가 아니라?</p>  
<p>하긴 일일 퀘스트 메시지 알림이어도 이상한 것이, 여기 오기 전에 일찌감치 일일 퀘스트를 끝내 놓고 보상까지 챙겨 왔다.</p>  
<p>그럼 일반 퀘스트란 말인데...</p>  
<p>처음 있는 일이었다.</p>  
<p>'여태까지는 히든 퀘스트나 긴급 퀘스트만 받아 봤으니까.'</p>  
<p>싫든, 좋든 매일 받게 되는 일일 퀘스트를 제외하면 말이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했다.</p>  
<p>'확인.'</p>  
<p>그러자 퀘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왔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일반 퀘스트: 악마의 영혼을 모아라! 1]</p>  
<p>악마성은 악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악마를 잡고 영혼을 수집해 특별한 보상들을 획득하십시오. 영혼은 악마 한 마리당 하나를 얻을 수 있지만, 상층에는 다수의 영혼을 지닌 악마도 있습니다.</p>  
<p>퀘스트 발생 조건:</p>  
<p>-악마성 입장</p>  
<p>퀘스트 완료 조건:</p>  
<p>-악마의 영혼 10,000개</p>  
<p>보상:</p>  
<p>-1. 모든 아이템 중 택 1</p>  
<p>-2. 보너스 스탯 +20</p>  
<p>-3. 공개되지 않는 보상</p>  
<p>보너스 스탯 20개!</p>  
<p>무엇보다 가장 먼저 진우의 시선을 끈 것은 보너스 스탯이었다.</p>  
<p>'지능을 20포인트나 올릴 수 있다!'</p>  
<p>미소가 절로 지어졌다.</p>  
<p>마나의 부족함은 뼈저리게 느꼈다.</p>  
<p>'그림자 병사들을 재생시키려면 많은 마나가 드니까.'</p>  
<p>어디 마나만 문제인가?</p>  
<p>지능이 올라갈수록 추출할 수 있는 그림자 수와 저장할 수 있는 병사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.</p>  
<p>지능 스탯이 절실했다.</p>  
<p>'레벨업이나 일일 퀘스트로만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...'</p>  
<p>퀘스트 보상으로 보너스 스탯 20 포인트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된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군침이 돌았다.</p>  
<p>'게다가.'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위로 올라갔다.</p>  
<p>[보상]</p>  
<p>-1. 모든 아이템 중 택 1</p>  
<p>-2. 보너스 스탯 +20</p>  
<p>보너스 스탯만으로도 감지덕지인데 모든 아이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질 수 있단다.</p>  
<p>'정말 아무거나 다 되는 건가?'</p>  
<p>진우는 전에 상점 목록에서 봤던 고가의 장비들을 떠올렸다.</p>  
<p>'분명 그때...'</p>  
<p>입수 난이도 S등급의 템들 중에서는 수십억, 심지어 100억까지 나가는 아이템도 있었다.</p>  
<p>그 100억이 현금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만 존재하는 화폐인 골드긴 하지만.</p>  
<p>그래도 그게 어딘가?</p>  
<p>당장 지금 쓰고 있는 '나이트 킬러'만 해도 3백만 골드짜리 아이템인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고 있었다.</p>  
<p>'3백만짜리 B급 아이템이 이 정도 성능이면 수억, 아니 수십억짜리 S급 아이템은 어느 정도일까?'</p>  
<p>호기심을 자극했다.</p>  
<p>보상 두 개를 보니 공개되지 않는 보상을 제쳐 놓고서라도 놓쳐서는 안 될 퀘스트였다.</p>  
<p>'이 정도 보상에 비하면 몬스터 한두 마리 잡는 건 식은 죽 먹기지.'</p>  
<p>후딱 퀘스트를 해치우고 보상을 받을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완료조건을 확인하던 진우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"1만 마리?"</p>  
<p>당혹감에 소리가 터져 나왔다.</p>  
<p>몬스터 한두 마리라고 웃어넘길 수준을 넘어섰다.</p>  
<p>'보통 노가다가 아니잖아?'</p>  
<p>악마란 놈들이 어떤 몬스터인지는 몰라도 만 마리라면 엄두가 나지 않는 숫자였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씩 웃었다.</p>  
<p>'혼자였다면 말이지.'</p>  
<p>현재 그림자 병사들 수는 50명.</p>  
<p>두당 2백 마리만 잡으면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다.</p>  
<p>병사들을 쥐어짜면 이까짓 퀘스트 쯤이야.</p>  
<p>[일반 퀘스트: '악마의 영혼을 모아라! 1'을 수락하시겠습니까?]</p>  
<p>'물론이지.'</p>  
<p>거절할 이유가 없었다.</p>  
<p>[퀘스트를 수락하였습니다.]</p>  
<p>실패 패널티라고 해 봐야 시간이 좀 낭비될 수 있다는 것뿐.</p>  
<p>'다른 퀘스트들 생각하면, 어휴...'</p>  
<p>일단 목숨부터 걸고 봐야 했던 전직 퀘스트나 긴급 퀘스트에 비하면 정말로 은혜로운 퀘스트가 아닐 수 없었다.</p>  
<p>진우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'앞으로 저기 다 표시되는 건가?'</p>  
<p>퀘스트를 수락하자마자 위쪽에 못보던 카운트가 떴다.</p>  
<p>[수집한 악마의 영혼 : 0 / 10,000]</p>  
<p>'1만... 까마득하네.'</p>  
<p>머릿속에 추상적으로만 남아 있던 목표량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헛웃음이 나왔다.</p>  
<p>그러다가 그 왼쪽, 허공에 떠 있는 다른 카운트를 발견했다.</p>  
<p>'어?'</p>  
<p>[다음 레벨업까지 남은 경험치: 60, 000]</p>  
<p>홀로그램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는 6만이라는 숫자.</p>  
<p>그걸 다 채우면 레벨이 올라간다고 적혀 있었다.</p>  
<p>'이제 경험치까지 표시되는 건가?'</p>  
<p>하지만 악마성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수치였다.</p>  
<p>'어디...'</p>  
<p>진우는 한걸음 물러서 악마성 밖으로 나갔다.</p>  
<p>그러자 영혼 숫자와 경험치 수치가 전부 사라졌다. 다시 안으로 들어가니 언제 그랬냐 싶게 둘 다 나타났다.</p>  
<p>'악마성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거네.'</p>  
<p>밖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아쉬웠지만 악마성 안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 편리할 듯했다.</p>  
<p>반대로 생각하면.</p>  
<p>'그만큼 여길 공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아닐까?'</p>  
<p>그런 추측도 가능했다.</p>  
<p>다시 한 번 퀘스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진우가 메시지 창을 닫았다.</p>  
<p>'퀘스트는 이 정도면 됐고.'</p>  
<p>이제 겨우 악마성 내부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우우우우-</p>  
<p>안에는 폐허로 변한 도시가 있었다. 예상치 못했던 필드형 던전이었다.</p>  
<p>'이건 뭐지? 서울인가?'</p>  
<p>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죽고 백 년쯤 지나면 이런 분위기일까?</p>  
<p>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한 도시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점멸하듯 깜박이고 있었다.</p>  
<p>'설마 필드형 던전일 줄이야...'</p>  
<p>그것도 대도시 서울을 기반으로 한 던전이었다.</p>  
<p>지하역이나 백화점같이 특정한 장소에 한정돼서 변형이 일어났던 인던들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규모였다.</p>  
<p>진우는 눈이 가늘어졌다.</p>  
<p>'어디로 가야 하지?'</p>  
<p>목적지는 어디일까?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.</p>  
<p>하지만 다행히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.</p>  
<p>저 멀리, 남산 타워가 있어야 할 방향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빛의 기둥이 하늘로 뻗어 있었다.</p>  
<p>'저쪽으로 가 보자.'</p>  
<p>진우는 그리로 걸음을 옮겼다.</p>  
<p>혹시나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 성문이 있는 주변을 잘 기억해 두고서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얼마가지 못해 걸음을 멈춰야 했다.</p>  
<p>"킥킥."</p>  
<p>"키키킥."</p>  
<p>건물과 건물 사이사이에서 자그마한 체구의 몬스터들이 한두 마리씩 슬금슬금 기어 나왔다.</p>  
<p>[하급 악마]</p>  
<p>놈들 머리 위에 검붉은색으로 적힌 이름을 보고 진우는 놈들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.</p>  
<p>'생김새가 꼭...'</p>  
<p>가고일이라는 마수에서 날개를 떼면 딱 저렇게 되지 않을까, 하는 생각이 드는 놈들이었다.</p>  
<p>놈들은 모두 여덟 마리.</p>  
<p>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다.</p>  
<p>'일단 영혼 여덟 개 확보다.'</p>  
<p>순간.</p>  
<p>콰직!</p>  
<p>한 놈의 미간에 '바루카의 단도'가 박혔다.</p>  
<p>[하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"키악?"</p>  
<p>"키엑?"</p>  
<p>단검을 맞은 녀석에게 놈들의 신경이 분산된 사이 진우는 다른 한 놈에게 다가가 놈의 머리를 목과 분리시켰다.</p>  
<p>스걱!</p>  
<p>[하급 악마를 처치하였습니다.]</p>  
<p>[경험치 100을 획득합니다.]</p>  
<p>[악마의 영혼 1개를 획득합니다.]</p>  
<p>이놈 역시 경험치 100을 줬다.</p>  
<p>'필요 경험치가 6만이라고 했으나...'</p>  
<p>하급 악마 6백 마리만 잡으면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소리였다.</p>  
<p>나머지 놈들도 순식간에 정리됐다.</p>  
<p>"키이에엑!"</p>  
<p>"켁!"</p>  
<p>현재 수집한 영혼 수 여덟 개.</p>  
<p>획득한 경험치는 8백.</p>  
<p>'이거 괜찮은데?'</p>  
<p>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고, 진우는 다음 사냥감을 찾아 눈을 반짝였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백호 길드 사장실.</p>  
<p>며칠 바빴던 탓에 손 대지 못하고 있었던 서류들을 훑어보던 백윤호.</p>  
<p>삑-</p>  
<p>호출음에 수화기를 들었다.</p>  
<p>-사장님, 민병구 헌터님이 통화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?</p>  
<p>"연결해 주세요."</p>  
<p>-네.</p>  
<p>잠시 뒤, 수화기 너머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.</p>  
<p>-백 형, 전화기는 왜 꺼 놨어요?</p>  
<p>백윤호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.</p>  
<p>"기자들 때문에. 잠잠해질 때까지 잠수나 타고 있으려고."</p>  
<p>-아, 그거! 레드 게이트! 저도 일본에서 뉴스 봤습니다. 형 화면빨 잘 받으시던데요?</p>  
<p>"속 긁지 마라.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. 언론에 누가 흘린 건지 걸리기만 하면 아주."</p>  
<p>-형,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곧 잠잠해질 겁니다. 빅뉴스가 하나 있거든요.</p>  
<p>"빅뉴스? 일본에서?"</p>  
<p>-네,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. 한국에서도 좀 있으면 전파 탈 겁니다.</p>  
<p>"왜? 무슨 일인데?"</p>  
<p>일주일 전 일본에서 헌터협회와 한국의 대형 길드들에 비밀스럽게 연락을 보내왔다.</p>  
<p>한국 헌터들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.</p>  
<p>그로부터 이틀 뒤 한국을 대표하는 헌터들 몇 명이 일본으로 건너갔다.</p>  
<p>민병구도 그중 한 명이었다.</p>  
<p>안 그래도 그쪽 소식이 궁금했던 참이었다.</p>  
<p>"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봐.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자문 구한 거 이번이 처음이잖아. 뭔데 그 난리래? 그 콧대 높은 자식들이?"</p>  
<p>-백 형... 전에 제주도 개미들 기억하시죠?</p>  
<p>4년 전 제주도에 열렸던 S급 게이트.</p>  
<p>거기에서 나왔던 개미들.</p>  
<p>세 번의 토벌 작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.</p>  
<p>결국 한국 정부는 제주도를 포기했고, 제주도는 마수들의 땅이 되고 말았다.</p>  
<p>"그걸 어떻게 잊냐? 나도 죽다가 살아나왔는데."</p>  
<p>-그거 변종이 생긴 거 같답니다.</p>  
<p>"변종? 어차피 관계없잖아. 지들끼리 섬 안에서 치고받고 하라지."</p>  
<p>-그게...</p>  
<p>전화 속의 목소리는 난처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.</p>  
<p>-일본 근해에서 날개가 달린 개미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